

한국농어촌공사 '기러기 가족' 비중 최고

나주혁신도시 가족동반 이주율 56.9% 전국 10곳 중 5번째 농어촌공사 38.7% 그쳐 ... 한전 45.8% 649명 동반 이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공기업 가운데 나 홀로 온 '기러기 가족'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농어촌공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 혁신도시 가족동반 이주율은 제주, 부산, 전북, 울산에 이어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중위권(5번째)을 차지했다.

이 같은 내용은 박성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지역별 가족동반 이주 현황' 자료에 담겼다.

올해 6월 말 기준 나주 혁신도시 이전 기관 16곳에서 미혼·독신자를 제외한 기존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56.9%로 집계됐다.

가족동반 이주율은 제주가 75.1%로 가장 높고, 부산(68.7%), 전북(66.5%), 울산(60.2%), 광주·전남, 대구(54%), 경남(49.5%), 강원(42.9%), 경북(36.6%), 충북(28.6%)이 뒤를 이었다.

나주 혁신도시 16개 기관 현원은 7714명으로, 미혼·독신 직원 2128명을 제외한 5576명 가운데 가족과 함께 나주로 이주한 직원은 56.9%에 달하는 3172명이었다.

전국 평균 동반 이주율 52.3%를 밑도는 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38.7%)와 한국전력공사(45.8%), 한국콘텐츠진흥원(49%),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50%) 등 4곳이었다.

농어촌공사는 미혼·독신을 제외한 현원 763명 중 38.7%에 달하는 295명이 가족

과 함께 나주에 터를 잡았다. 5가구 중 3가구 꼴로는 '기러기 가족'인 셈이다.

농어촌공사 출퇴근 직원 비율은 2.8%로, 나주 혁신도시 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평균(0.6%)도 크게 웃돌았다.

반면 전국 112개 혁신도시 이전 기관 가운데 가족동반 이주율 상위 30위권 안에 드는 기관은 우정사업정보센터(88.5%)와 농식품공무원교육원(74.6%), 국립전파연구원(71.4%) 등 3곳이었다.

전국에서 동반 이주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에 있는 국립식량과학원으로, 이주율이 91.4%에 달했다.

나주 16개 기관 가운데 혁신도시 계획 당시 소관 주무부처로부터 승인 받은 이전인원을 충족한 기관은 11곳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경우 계획인원 1531명을 400여명 넘긴 1935명이 나주로 이주했다. 한전 KDN(1150명), 농어촌공사(897명), 한국전력거래소(404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393명), 콘텐츠진흥원(275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240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50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148명), 전파연구원(146명), 농식품공무원교육원(70명)도 기존 계획인원을 충족하거나 초과 달성했다.

반면 우정사업정보센터는 6월 현재 724명이 이주하며 계획인원(816명)을

■ 혁신도시 가족동반 이주율

(6월 말 기준, 단위: %·명)

기관명	이주율	이전승인인원	현원	가족동반	단신이주
소계	56.9%	6923	7714	3172	2356
우정사업정보센터	88.5%	816	724	531	69
농식품공무원교육원	74.6%	66	70	47	16
국립전파연구원	71.4%	142	146	85	3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65.5%	322	393	152	80
한국전력거래소	65.1%	305	404	155	7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64.0%	121	150	71	3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2.9%	266	176	88	52
한전KPS	61.4%	482	432	170	107
한전KDN	60.8%	944	1150	477	30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9.4%	84	148	41	28
한국인터넷진흥원	56.1%	558	493	208	16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54.9%	240	240	101	83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50.0%	97	81	31	31
한국콘텐츠진흥원	49.0%	171	275	71	74
한국전력공사	45.8%	1531	1935	649	754
한국농어촌공사	38.7%	778	897	295	443

※ 미혼·독신 제외 비율 (자료: 박성민 의원실·국토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

92명 채우지 못했고, 한전KPS(482명 중 432명), 한국인터넷진흥원(558명 중 493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266명 중 176명)도 현원이 계획인원보다 부족했다.

지난해 1월 나주로 본원을 옮기며 혁신도시 시즌1을 마감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81명 이하하며 목표인 97명보다 16명 모자랐다.

한편 나주 16개 기관 평균 직원 출퇴근 비율은 0.6%로, 전국 평균(6.2%)를 크게 밑돌았다.

박 의원은 "정주 대책이 없는 경우 결국 기러기 가족만 양산하고, 혁신도시의 주말 공동화 현상만 부채질할 수 있다"며 "제주, 부산 등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높은 것은 특별분양 단지가 좋은 학군 내에 있거나, 교육·의료·문화 여건이 좋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혁신도시의 도서관, 어린이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여건을 개선해 공공기관 직원 가족동반 이주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1인당 150만원 휴일근무수당 체불"

이마트 노조 1000여 명 소송 제기

대형마트 업계 1위 이마트가 노조로부터 휴일근무수당 체불임금을 둘러싼 수십억 대 청구 소송을 당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는 지난 7일 이마트 봉선점 앞에서 '체불임금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8일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7개점 노조원을 포함해 전국 1000여 명이 소송인단에 참여했으며, 1인당 청구 금액은 15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이마트 노조 측은 이마트가 3년간 근로자들의 휴일근무수당 600억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난 6월부터 전국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해왔다.

노조는 이마트가 근로기준법을 좇아 근로자 과반의 의사를 모아 선출하는 방식 대신 점포당 5명 안팎의 사업장대표가 간선제로 뽑은 전사 사원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내세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뽑힌 근로자대표 임기는 3년으로, 오는 12월 말 새 대표가 간선 선출될 예정이다.

노조 측은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르면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돼 있지만, 회사는 적법하지 않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대체휴일 1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임금을 100%만 지급해 인건비를 줄여왔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2012년부터 이런 수법으로 휴일근무수당을 대체휴일로 대체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광주전라본부 50명은 지난 7일 이마트 봉선점 앞에서 '체불임금 소송집수 기자회견'을 열었다.

왔으며,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한 최근 3년 기준으로 최소 600억원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추산했다.

노조는 이달 말까지 2차, 3차 체불임금 소송에 대한 노조원들의 의견을 온라인 설문조사 형식으로 물을 계획이다.

이마트 측은 "고용노동부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과반수 조가 없는 이마트는 노사협의회 전사 사원대표를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글·사진·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 4호 선정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왼쪽)은 지난 7일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 4호 선정식을 열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본부(본부장 김은영)를 통해 선정된 지역 청소년에 학습 지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광주은행 제공>

아시아나 인수 '데드라인' 앞두고

HDC현산, 금호와 대면협상 수용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 대면 협상을 거부해 온 HDC현산산업개발이 인수 계약 종료 시한을 이틀 앞두고 양사 대표들이 만나 협상하자고 금호산업에 역제안했다. 금호산업도 현산의 역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고착된 협상에 돌파구가 열릴 지 주목된다.

현산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금호산업이 인수상황 재검점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이를 위해 양사 대표이사 간의 재실사를 위한 대면 협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산은 "인수거래를 종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면서 "금호산업이 당사의 제안을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일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금호산업은 "대표이사 간 대면 협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호산업은 지난달 현산에 인수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이달 12일 이후에는 계약해제 및 위약금 물체가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산업은행도 같은 입장이다.

현산은 이날 대면 협상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금호산업에 재실사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현산은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이 직격탄을 맞고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상황이 작년 12월 계약 당시와 크게 달라졌다고 이 점을 점검하기 위한 12주간의 재실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산은 "인수거래를 종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면서 "금호산업이 당사의 제안을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일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금호산업은 "대표이사 간 대면 협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분기 제조업 국내공급 4.6% ↓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부진으로 2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이 1년 전보다 4.6% 줄었다. 통계청이 지난 7일 발표한 '2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을 보면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올해 2분기 101.3(2015년=100)으로 한 해 전보다 4.6% 내렸다.

제조업 국내공급은 작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증가세였지만, 지난 2분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번 감소율은 반도체 설비투자가 급감한 2018년 3분기(-5.5%) 이후 가장 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로또복권 (제1923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3	17	18	23	36	41	26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667,554,625	8
2	5개 숫자+ 보너스숫자일치					63,513,206	56
3	3개 숫자일치					1,496,945	2,376
4	4개 숫자일치					50,000	115,877
5	3개 숫자일치					5,000	1,937,187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